

[ TV ]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한류, 잔치는 끝났다?

국제문화교류재단 발표... "만족도 떨어지고 불만을 높아져"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아시아인의 불만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에 따라 한류상품 마케팅의 선진화, 스타 의존 대신 보편적 문화가치의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사장 신태백, 이하 교류재단)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광고문화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문화상품의 동아시아 소비자 및 정책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류 콘텐츠에 아시아인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일본의 만족도를 제외하면, 다른 분야와 나라에서는 만족도가 낮아졌고 불만율도 올랐다.

드라마의 경우 중국과 대만은 2004년 대비 만족도가 각 72.0%에서 63.3%, 62.0%에서 57.9%로 낮아졌다. 반면 불만율은 5.0%에서 5.4%, 1.0%에서 3.0%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한류가 정점을 지나 성장의 둔화를 겪는 변곡점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했



배용준



이영애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스타 인지율과 선호도 조사에서는 배용준, 이영애, 김희선 등 '전통적 한류 스타'들의 인기가 여전히 높았으나, 한국 연예인 전체 인지율 조사에서 배용준은 일본과 대만에서 50.1%와 27.0%로 1위를 차지했고, '가장 먼저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을 묻는 조사에서도 일본에서 21.7%로 가장 높았다.



강수정, SBS '야심만만' 새 MC

10월 말 프랜차이즈 선언을 한 강수정 전 KBS 아나운서가 윤종신의 바통을 이어 받아 SBS TV '야심만만'의 새 MC를 맡는다.

2002년 공채 28기로 KBS에 입사한 강수정은 '해피선데이-여덟시' 등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가'를 드러내 큰 인기를 모았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with details on featur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케이블·위성TV 27일

Large table listing TV programs across various channels including YTN, MBN, KTV, MBC MOVIES, SBS, EBS1, KBS Prime, and others.

PBC 광주광역시방송 (PBC Gwangju Metropolitan City Broadcasting) logo and website information.

TBN 교통방송 (TBN Traffic Broadcasting) logo and website information.

BBS 불교방송 (BBS Buddhist Broadcasting) logo and website information.